환경부 보도자료 APEC 2025 KOREA

보도시점 2025. 9. 15.(월) 15:00 배포 2025. 9. 15.(월)

환경부·환경단체, “조류독소 공동조사 착수, 올해 안에 결과 공개”

- 낙동강 본류 구간 5개 지점에서 9월 15일부터 원수 및 공기중 조류독소 모두 조사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15일 오후부터 환경단체 2곳(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 녹조 심화지역에 대한 조류독소 공동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조사는 그동안 환경단체 조사결과에서 공기중 조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있었고, 이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그동안 공동조사를 위한 협의를 오랫동안 진행했으나, 끝내 공동조사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새정부 출범 후 공동조사 협의를 재개하여 이번에 공동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며, 이에 따라 환경부와 시민사회간의 관계가 복원되고 녹조 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조사는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협의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과 경북대학교가 조사기관으로 참여하여 동일한 조사 지점과 방법으로 진행된다.

* 공기중 시료 채취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진행하고 시료 내에 조류독소 분석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콘트롤센터에서 진행

조사대상은 낙동강 본류 구간 5개 지점*(지점당 4회)이며, 각 지점에서 원수와 공기중 조류독소를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 ① 화원유원지(대구 달성군 일원), ② 달성보선착장(대구 달성군 일원), ③ 본포수변공원(경남 창원시 일원), ④ 남지유채밭(경남 창녕군 일원), ⑤ 대동선착장(경남 김해시 일원)

시료 채취는 국립환경과학원과 경북대학교가 이달(9월) 안으로 완료하고 시료에 대한 분석을 올해(2025년) 안에 마무리한 후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조류독소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26년 원수, 공기중 등에 대한 조류독소 공동조사 방향을 협의·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관계기관, 시민사회 및 전문가 등과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녹조 문제 해법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조류독소 공동조사 개요. 끝.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배연진	(044-201-7001)
		담당자	사무관	김민중	(044-201-7018)
	국립환경과학원 한강통합물환경센터	책임자	센터장	나은혜	(032-560-7470)
		담당자	연구관	신유나	(032-560-746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PEC 2025 KOREA 10.27.~11.1. 경주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조류독소 공동조사 개요**

□ 조사 개요

○ **(조사기관)** 국립환경과학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석)과 경북대학교

○ **(조사장소)** 낙동강 녹조심화지역 5개소

○ **(조사방법)** 원수 및 공기중 조류독소 채취 및 분석

○ **(조사시기)** 9월 3주・4주(9.15~)

□ 조사 장소

○ (본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126-1 본포수변공원

○ (달성보)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1193 달성보 선착장

○ (화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로1길 33-18 화원체육공원

○ (남지)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873-7 창녕남지유채밭

○ (대동)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3-1 대동 선착장

□ 조사 일정(9월3주)

구 분		지점 및 조사시간	
		1차(12~14시)	2차(15~17시)
1주차 (9.15~9.17)	1차조사 (9월15일/월)	-	본포 (1회)
		-	달성보 (1회)
	2차조사 (9월16일/화)	화원 (1회)	달성보 (2회)
		남지 (1회)	대동 (1회)
	3차조사 (9월17일/수)	대동 (2회)	화원 (2회)
		남지 (2회)	본포 (2회)

※ 기상 상황 등 여건에 따라 조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